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한 코퍼스 분석

-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뉴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안진현·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약

한국 여성들은 전례 없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아름다운 외모에 관한 이미지는 시각문화로 공유되면서 여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온 미디어 속에서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수집하고 신체 변형의 어휘적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하는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의 외모를 규정하는 언어적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17년 뉴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미디어는 여성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하여 이상적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신체 변형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패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한 다양한 보도들은 여성이 신체 변형을 익숙하게 받아들일도록 함으로써 신체 변형이 타고난 외모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외모를 위해 관리하는 행위로 인식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어휘적 의미는 가치 획득, 소비와 투자, 유행과 정보, 효율과 효과, 세분화, 반작용과 다변화, 판단과 평가, 자기관리의 일상화, 성적 대상화,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외모의 개념, 의미, 속성으로 계층화된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량의 텍스트에서 외모에 관한 언어 행위를 확인하고자 하며, 언어 현상으로부터 신체와 외모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는 의류학의 향후 관련 연구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를 이루는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수집한 실증적 연구이자, 미디어에 나타난 현대 한국 여성들의 외모 기준을 언어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외모, 신체, 신체 변형, 미디어, 코퍼스 분석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하지수, jisooha@snu.ac.kr

접수일: 2019년 2월 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8일

I. 서론

타 문화권과 사회에 비해 한국 사회에 여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외모관리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모를 관리하였지만, 동시에 지나친 외모 추구로 인한 차별, 자기 비하 등의 문제를 겪기도 했고, 성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신체를 변형함으로써 외모를 바꾸려는 사람들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미용성형의 시술 규모로도 알 수 있다. 국제미용성형협회의 보고서(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1)에 따르면, 2011년 한국 내의 미용성형시술은 649,938건이며 인구 1인당 대비해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로 조사되었다.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체중 감소를 위해 노력한 여학생들이 42.5%이며, 그중 23%의 여학생들이 부적절한 체중감소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신체 변형을 통한 외모관리가 성인 여성들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외모 추구와 보편화된 외모관리가 점차 어린 연령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Kaiser(1997)에 따르면, 여성들은 외모에 관한 사회의 관습 내지 규범을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도록 훈련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남성, 남성의 평가를 반영하여 미디어가 양산해내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 미디어가 생산하는 문화코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여성은 외모에 대하여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다이어트, 성형 등의 적극적인 외모관리를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미디어가 특정

주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면 대중들이 그 이슈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의제설정 효과(*agenda setting effects*)가 나타나며(McCombs & Shaw, 1972), 미디어는 개인의 인지적 스키마(*sche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결정하는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s*)를 가진다(Tuchman, 1978). 미디어가 전달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따라 외모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외모와 미디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됨과 동시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디어 이용률과 외모관리(Jun & Lee, 2014; Kim & Bae, 2014; Kim et al., 2013; Park & Hwang, 2015), 낮은 신체 만족도를 유발하는 미디어와 영향(Lee & Park, 2013; Song et al., 2009) 등 미디어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가 성형, 섭식 태도와 같은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나눈 비교(Kim & Han, 2008; Park, 2014), 여성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이 외모 관련 태도, 신체 이미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Min, 2008; Park et al., 2016) 등으로 다양한 집단에서 미디어라는 요인이 외모와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즉, 여성의 외모와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력, 외모에 관한 개별 주체나 집단의 행위와 태도, 메커니즘(*mechanism*) 등에 대해 치중하여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온 미디어 속에서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수집하고 신체 변형의 어휘적인 특징과 의미를 연구하는 코퍼스(*corpus*)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의 외모를 규정하는 언어적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등에 대한 사건과 글들이 매일 기록되는 신문의 뉴스

기사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포착해내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창출하는 주요한 미디어이며, 디지털로 데이터화되어 자료 선정이 정확하고 용이하다. 이에 현대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언어적 현상을 포착함에 있어 신문매체의 뉴스 기사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000년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급증하고 포털 사이트가 부상한 시기이자(Lee, 2015),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외모가 새로운 차별 요소로 언급된 시기로서(Safire, 2000),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미디어 환경에서의 특수성과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적 보편성에 주목하여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앙지 6개사 뉴스 기사를 연구 범위로 하여, 뉴스 기사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말뭉치, 즉 코퍼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BIG Kinds: 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Korea Press Foundation, 2017).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외모에 관한 이론들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언어 행위들을 뉴스 기사 빅데이터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외모의 개념과 의미, 속성을 계층화한 분류 체계인 외모 텍사노미(taxonomy)를 도출하였다. 둘째, 외모 텍사노미로 도출된 신체, 신체 변형의 관련어들을 코퍼스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양적연구를 통해, 미디어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수식과 표현을 확인하고, 신체 변형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외모의 개념, 의미, 속성으로 계층화된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량의 텍스트에서 외모에 관한 언어 행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체와 외모의 중요성을 언어

현상으로부터 확인하는 의류학의 향후 관련 연구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를 이루는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수식과 표현을 수집한 실증적 연구이자, 미디어에 나타난 현대 한국 여성들의 외모 기준을 언어적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외모의 정의

Hillestad(1980)는 총체적 개념으로 외모를 연구할 수 있는 외모의 기본 구조에 복식(dress)과 신체(body)라는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복식을 다시 의복(clothing)과 장식(adorment)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하였다. 의복은 인체를 편안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에 두는 것과 관련된 의미, 장식은 신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 위 또는 신체 주변에 걸치는 아이템들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였다. 신체의 구성요소는 신체 형태(body forms), 신체 동작(body motions), 신체 표면(body surfaces)으로 분류하였다. 신체 형태는 몸의 실루엣이나 형태이며 고정된 자세에서의 신체 전체 구조와 관련된 특성을 가지며 머리, 팔다리와 같은 다양한 단위의 구조 특성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신체 동작은 걸음걸이, 자세와 같이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와의 움직임과 상호 관계가 존재하는 범주이다. 그리고 신체 표면은 전체적인 신체를 덮고 있는 외피, 피부와 헤어의 색, 질감과 같은 각 부분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며 촉각과 시각 양쪽 모두에 소구되기 때문에 외모의 가장 감각적인 성질을 지닌 범주이다. 이후 Hillestad(2005)는 1980년에 제시한 외모의 분류 중 신체 구성요소에 얼굴의 고유한 형태, 움직임

입 및 표면과 관련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얼굴 구성(facial configurations)을 추가하였다. 얼굴은 신체에서 특히 표현적인 부분이며 외모의 주요 자극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구성에서 얼굴의 구성을 별개의 범주로 고려한 것이다. 또한 Hillestad(2005)는 신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modify)하는 것도 신체의 구성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Hillestad(1980, 2005)는 신체에 대한 구성을 더 확장하고 신체 변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기존에 외모를 복식과 신체로 나누었던 것을 신체와 복식의 순서로 설명함으로써 외모에서 신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높아진 것을 반영하였다.

Roach-Higgins and Eicher(1992)는 복식에 대한 종래의 개념을 확장 정의하여 옷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장식도 복식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복식을 신체 변형(body modification)과 신체 부착(body supplement)으로 나뉘, 신체의 확장된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복식을 연구하였다. Hillestad(2005)가 신체의 구성요소의 설명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정도였던 신체 변형을 Roach-Higgins and Eicher(1992)는 복식 내에서 중요한 범주로 따로 두었다. 신체 변형은 체중 관리, 성형수술, 문신, 헤어스타일, 제모, 염색 등과 같이 근육/골격, 치아, 스킨, 헤어 등의 신체를 변형하는 것으로, 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체 부착은 의복, 신발과 같이 몸을 감싸는 것, 귀걸이와 같이 몸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것을 포함한다.

Johnson et al.(2002)은 개인이 인상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외모와 복식 단서를 질적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외모와 복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모든 응답을 신체적 측면, 복식적 측면, 복식의 시각적 측면(visual aspects)의 세 가지 분류로 범주화하였다. 신체적 측면은 Hillestad(1980)의 연구를, 복식적 측면은 Roach-Higgins and Eicher(1992)의

연구를 따랐으며, 새롭게 추가된 범주인 복식의 시각적 측면에는 심미성(garment aesthetics), 유행성(fashionability), 적합성(appropriateness)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심미성은 개인들이 옷을 어떻게 조합하고 착용하는지, 유행성은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옷을 입는지, 적합성은 옷을 전후 사정에 맞게 입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복식의 시각적 측면은 개인의 입장에서 외모를 둘러싼 인상을 형성하는 단서들로 외모의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Kaiser(1997)에 의하면 외모는 의복, 신체를 포함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며 외모의 구성요소들에는 신체적인 속성과 신체적 외모를 돋보이도록 사용한 의복, 장신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그는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형태로서 외모의 특징을 언급하였는데, 사람들은 타인의 외모를 지각할 때 눈, 코, 입 등을 따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으로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모를 외양(外樣)이라는 겉모양, 즉 시각적인 측면과 외모 중에서 신체 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으며, 이에 따라 Hillestad(2005)가 주장하는 외모의 총체적 개념을 따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를 신체 그 자체에 관한 신체와 신체를 운용하고 그에 더해지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식으로 정의하고, 향수와 같이 시각의 측면이 아닌 복식의 요소들은 외모 내에서 제외하였다.

신체는 신체 형태, 신체 동작, 신체 표면, 얼굴 구성으로 정의 내리고, 머리, 목, 가슴과 같이 다양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덩어리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체 사이즈, 체형, 체중까지 신체 형태에 포함시켰다. 신체의 전체 또는 부분의 움직임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자세, 걸음걸이, 제스처와 같은 신체 동작도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신체의 가장 곁에 해당하는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 발톱과 같은 신체 표면은 시각적인 측면과 촉각적 요소가 함께 지각되는 부분으로 정의하였다. 얼굴은 작은 신체와 같이 그 구성과 신체와 동일하게 얼굴형, 이마, 눈, 코, 입술과 같은 얼굴 형태, 얼굴 내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표정, 눈빛, 미소와 같은 얼굴 동작, 얼굴색과 같은 얼굴 표면으로 구성된다.

복식은 신체 변형과 신체 부착, 복식의 종합적 속성을 포함한다. 신체 변형은 신체의 색, 형태, 질감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변형하는 것이며, 신체 부착은 신체를 감싸거나 부착하는 것으로 의복과 액세서리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렌즈는 눈에 부착하는 의미에서 안경, 선글라스와 같이 복식의 신체 부착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복식 요소들 각각이 모여서 결정되는 심미성, 유행성, 적합성은 복식의 종합적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2. 외모 텍사노미

텍사노미는 글자 그대로 ‘분류 체계’를 의미한다. 텍사노미 단어의 기원은 순서와 배열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τάξις(taxis)’와 법률 또는 과학을 의미하는 ‘νόμος(nomos)’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물이나 개념의 분류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류의 기본 원리를 지칭한다(“Taxonomy”, n.d.). 텍사노미는 여러 의미가 혼용되고 있지만 Daconta et al.(2003)는 텍사노미를 계층구조(hierarchy)의 형태로 정보 개체를 분류하는 것이라 보았다. 텍사노미는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후, 범주에 따라서 계층화시켜 분류한다. 이는 객체를 찾거나 기술할 때 필요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Moon, 2006), 지식 기반의 시스템에서의 분류 체계로 활용하는 것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외모의 분류 체계, 즉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

고 신체와 신체 변형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추출하여 뉴스 기반 빅데이터 분석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지식 모델링 기법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인 Noy and McGuinness(2001)의 온톨로지 구축 방법론(Ontology Development 101)에 근거하여 외모 텍사노미를 구축하였으며 그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외모 텍사노미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외모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외모는 인간의 신체와 관련되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총체로 신체와 복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모 텍사노미는 외모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신체와 복식에 관해 분석이 가능한 틀이어야 한다. 외모 텍사노미는 한국 사회에서 외모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차원,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문화적 차원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의 관점에서의 외모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쓰이는 단어로 외모 텍사노미를 제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외모에 관련된 연구에서 외모 텍사노미가 연구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영역에 맞도록 수정 및 확장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외모 텍사노미를 검색하는 과정을 거쳤다. Hillestad(1980)가 제안한 외모 텍사노미, Roach-Higgins and Eicher(1992)가 제시한 복식의 분류, Johnson et al.(2002)이 제시한 외모 분류를 함께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의 외모 텍사노미를 정립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외모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외모의 개념과 의미 및 속성을 정리하는 것이다. 외모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Hillestad(1980; 2005), Roach-Higgins and Eicher(1992), Johnson et al.(2002)의 연구에서 외모의 개념과 의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외모에 관

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현재 더욱 중요해진 외모의 속성들을 반영하였다.

네 번째는 외모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여 계층화하는 단계이다. 외모의 내부 구조(internal structure)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하향식으로 외모를 분류하고 계층화하였다. 분류 체계상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개념을 외모로 규정하고 외모를 구성하는 신체, 복식의 속성에 따라 세부내용들을 분류하였다. 신체는 신체 형태, 신체 동작, 신체 표면, 얼굴 구성으로, 복식은 신체 변형과 신체 부착으로 분류하였다. 신체 변형은 신체 성질의 변화로 신체의 색 변형, 형태 변형, 질감 변형으로,

Table 1. 외모 텍사노미.

개념 범주			개념 속성 키워드
상위	중위	하위	
A 신체			신체, 몸
	A01 신체 형태		
		A01-01 신체 부위	머리, 목, 유방/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A01-02 신체 사이즈	신체사이즈/몸사이즈, 체격, 키, 신체비율/몸비율
		A01-03 체형	체형, 몸매, 보디라인/바디라인, 각선미
		A01-04 체중	체중/몸무게
	A02 신체 동작		몸짓
		A02-01 자세	자세
		A02-02 걸음걸이	걸음걸이
		A02-03 제스처	제스처
	A03 신체 표면		피부
		A03-01 피부	피부결, 피부색/피부컬러, 피부톤
		A03-02 머리카락	머리카락/헤어, 머릿결, 머리색/머리컬러/헤어색/헤어컬러
		A03-03 손톱, 발톱	손톱, 발톱
	A04 얼굴 구성		얼굴
		A04-01 얼굴 형태	얼굴윤곽/얼굴선/얼굴라인/페이스라인, 얼굴형/두상, 이마, 눈, 코, 입술, 입, 귀, 치아, 광대, 턱, 눈썹, 속눈썹
		A04-02 얼굴 동작	표정, 눈빛, 미소
	A04-03 얼굴 표면	얼굴색/얼굴빛/안색/낯빛	
B 복식			복식
	B01 신체 변형		
		B01-01 색 변형	염색, 화장/메이크업, 선텐/태닝, 미백/화이트닝, 타투/문신, 네일, 페디큐어
		B01-02 형태 변형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머리모양, 피어싱
		B01-03 질감 변형	기초화장, 피부미용, 피부시술/피부과시술, 스킨케어/피부관리, 헤어케어/헤어관리/모발케어/모발관리, 제모/왁싱
	B02 신체 부착		
		B02-01 의복	의복, 옷, 패션
		B02-02 액세서리	액세서리, 보석/주얼리, 장신구, 신발, 구두, 모자, 가방, 핸드백, 안경, 선글라스, 렌즈
	B03 복식의 종합적 속성		
		B03-01 심미성	핏, 코드, 스타일, 색/컬러
	B03-02 유행성	트렌드/유행	
	B03-03 적합성	옷차림/차림새, 복장	

신체 부착은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것으로 신체를 감싸는 옷과 액세서리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종합적 속성을 복식의 범주에 추가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외모 텍사노미를 정립하는 것이다. 외모 텍사노미를 정립하기 위해 외모를 신체, 복식의 기본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의 속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위, 하위의 분류로 작성한 후, 개념 속성 키워드들을 채워 넣었다. 개념 속성 키워드는 외모 텍사노미를 구성하는 개념들의 유사어와 동의어들까지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축한 외모 텍사노미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구축한 외모 텍사노미 결과는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3인으로부터 2회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텍사노미의 범주 구성과 개념 속성 키워드를 수정 및 보완하여 타당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외모 텍사노미는 <Table 1>과 같다. 구축된 텍사노미는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언어 행위들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III.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코퍼스 분석

뉴스 기사 빅데이터에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과 관련된 코퍼스들을 수집하여 한국 여성의 외모에 관해 어떠한 말들이 쓰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외모 텍사노미를 기준으로 신체와 신체 변형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앞에 쓰인 형용사, 명사 언어 관계의 코퍼스 내용을 분석하였고,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이 연관어로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키워드들의 언어 관계, 연관어 코퍼스 결과를 활용하여 미디어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한 어휘적 의미를 도출

하였다.

1. 언어 관계 분석: 신체와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1) 언어 관계 수집

언어 관계 분석은 검색어의 좌우 문맥의 일정 범위(span) 안에 어떤 단어들이 공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Shin, 2017),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외모 내에서 신체와 신체 변형과 관련된 형용사, 명사 어휘에 대한 좌측 공기어(co-occurring words, 共起語)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외모 텍사노미에서 도출된 신체와 신체 변형의 개념 속성 키워드에 어떠한 ‘수식어’들이 결합하여 쓰이고 있는지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장 인접한 좌측 공기어로 특정 단어를 수식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들로 특정 단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련된 어휘들의 직접적인 수식 단어들을 언어 관계 분석함으로써 외모의 의미가 어떻게 제한되고 그 속성들은 어떠한지 파악해볼 수 있다.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코퍼스 분석을 위해, 먼저 뉴스 기사 내에서 여성을 의미하는 고빈도의 어휘 ‘여성’, ‘여자’를 선정하였다. 한국에서 여성을 부르는 호칭으로는 ‘여성’, ‘여자’ 외에도 ‘어머니’, ‘소녀’, ‘아내’, ‘언니’, ‘여학생’, ‘여대생’, ‘아가씨’, ‘숙녀’, ‘계집’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반대되는 의미로 성별을 구분하는 ‘여성’과 이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는 ‘여자’로 여성 관련 어휘를 한정 지음으로써 특정 여성관이나 비하의 뜻을 보이는 어휘들은 배제하였다. 이에 ‘여성’과 ‘여자’를 신체와 신체 변형의 키워드들과 함께 복합 검색어로 두어, 한국 여성에 대한 외모 관련 어휘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각 외모 관련 어휘들의 언어 관계를 수집하였

다. 그리고 연어 관계 분석은 뉴스 기사의 주제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 즉 뉴스 기사의 텍스트 자체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뉴스 기사에서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 빅카인즈의 분류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 과학의 분류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어 관계 분석을 위한 코퍼스 수집 범위는 <Table 2>와 같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외모 텍사노미의 개념 속성 키워드 중에서 신체 개념 속성 키워드 50개(신체, 몸, 머리, 목, 유방/가슴 등), 신체 변형 개념 속성 키워드 21개(염색, 화장/메이크업 등)로 총 71개의 키워드들을 ‘(외모 텍사노미 개념 속성 키워드) AND ((여성) OR (여자))’로 조합한 검색식을 입력하여 검색된 뉴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외모 텍사노미의 개념 속성 키워드’의 바로 앞에 쓰인 형용사, 명사를 추출하는 연어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빅카인즈의 정보 추출 분석은 정확도 기준으로 상위 1,000건의 분석을

제공하기에, 검색된 기사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분석하였다.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대한 언어를 수집하여 연구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남성의 외모와 관련된 코퍼스들과 외모를 의미하지 않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제외하는 정제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뜨거운 가슴’에서의 ‘가슴’은 신체의 가슴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정제된 코퍼스들은 발생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구성하였다.

2) 연어 관계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지 6개사에 수록된 뉴스 기사는 총 6,185,139건이며, 이들 중 여성 또는 여자의 신체, 신체 변형 범주의 개념 속성 키워드 총 71개를 조합한 검색어에 따라 검색된 각 결과의 좌측 형용사, 명사 공기어를 추출하여 연어 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검색한 신체, 신체 변형의 어휘들에 따라 추출되는 좌측 형용사와 명사의 수는 다르다. ‘페디큐

Table 2. 연어 관계 분석의 코퍼스 수집 범위.

구분	내용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주제 분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지역, 스포츠, IT_과학
검색 기간	2000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검색어	(외모 텍사노미 개념 속성 키워드) *AND ((여성) OR (여자))
	* <Table 1> 외모 텍사노미에서 도출된 71개의 신체, 신체 변형 개념 속성 키워드들을 아래의 방식으로 각각 검색어에 조합
신체	(신체), (몸), (머리), (목), ((유방) OR (가슴)), (배), (허리), (영덩이), (팔), (다리), ((신체사이즈) OR (몸사이즈)), (체격), (키), ((신체비율) OR (몸비율)), (체형), (몸매), ((보디라인) OR (바디라인)), (각선미), ((체중) OR (몸무게)), (몸짓), (자세), (걸음걸이), (제스처), (피부), (피부결), (피부색) OR (피부컬러), (피부톤), ((머리카락) OR (헤어)), (머릿결), ((머리색) OR (머리컬러) OR (헤어색) OR (헤어컬러)), (손톱), (발톱), (얼굴), ((얼굴윤곽) OR (얼굴선) OR (얼굴라인) OR (페이스라인)), ((얼굴형) OR (두상)), (이마), (눈), (코), (입술), (입), (귀), (치아), (광대), (턱), (눈썹), (속눈썹), (표정), (눈빛), (미소), ((얼굴색) OR (얼굴빛) OR (안색) OR (낯빛))
	(염색), (화장) OR (메이크업)), ((선땀) OR (태닝)), ((미백) OR (화이트닝)), ((타투) OR (문신)), (네일), (페디큐어),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 OR (머리모양)), (피어싱), (기초화장), ((피부시술) OR (피부과시술)), ((스킨케어) OR (피부관리)), ((헤어케어) OR (헤어관리) OR (모발케어) OR (모발관리)), ((제모) OR (확성))
검색 범위	형태소 분석 / ‘제목+본문’으로 전체 검색

Table 3. 신체 및 신체 변형 개념 속성 키워드의 언어 관계 결과표 일부.

좌측 공기어		개념 속성 키워드	개념 범주	
형용사	명사			
아름다운, 예쁜, 커다란, 새로운, 심한, 멋진, 착한, 올바른, 부드러운, 둥근	왼쪽, 양쪽, 한방, 한쪽, 오른쪽, 물방울, 자가지방, 줄기세포, 거대, 실리콘	유방/ 가슴	A01 신체 형태	A 신체
아름다운, 우스꽝스러운, 가녀린, 귀여운, 예쁜, 가벼운, 야한, 어설픈, 서툰, 건방진	손짓, (말)대신, 즉흥, 표정, 인간, 관능, (여러)가지, 섹시, 에로틱, 농염	자세	A02 신체 동작	
하얀, 뽀얀, 고운, 매끄러운, 아름다운, 거친, 환한, 부드러운, 어두운, (-하기)쉬운	지성, 동안, 얼굴, 진성, 여드름, 구릿빛, 아기, 무결점, 물광, 광채	피부	A03 신체 표면	
도드라진, 날카로운, 두드러진, 부드러운, (잡티 생기기)쉬운	45도, 리프팅, 옆, 3D, 삼각, EZ, L자형, 동안, 30분, 시크릿	광대	A04 얼굴 구성	
뛰어난, 빠른, 새로운, 놀라운, 지나친, 비싼, 색다른, 올바른	피부, 치아, 전신, 얼굴, 기존, 전문가, 한방, 고농축, 집중, 신개념	미백/ 화이트닝	B01-01 색 변형	B 복식
지나친, 새로운, 올바른, 흔한, 비싼, 가벼운, 뛰어난, 어려운, 바쁜, 어설픈	가슴/유방, 미용, 한방, 뽀뽀, 전신, 한방가슴, 얼굴, 불법, 이마, 소음순	성형	B01-02 형태 변형	
새로운, 올바른	평소, 무료, 각종, 고급, 무허가, 여름, 다이어트, 전문, 기존, 갖가지	피부미용	B01-03 질감 변형	

어'의 좌측 형용사의 경우는 '빨간'으로 단순히 1개의 단어만 추출되었으나, '성형'의 좌측 명사는 정제 이전에 약 1,000개의 단어들이 추출되기도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몇 개의 연어를 분석할 것인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상 외모의 신체, 신체 변형에 해당하는 관련 어휘의 좌측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한 상위 10개의 형용사와 명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총 71개의 개념 속성 키워드 모두 형용사와 명사들이 공기하면서 여성의 외모에 대한 시각적인 특성을 수식하고 명명하는 표현들이 언어 관계로 드러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Table 3>과 같이 총 71개 개념 속성 키워드의 언어 관계 결과표 중에서 각 개념 범주별로 개념 속성 키워드의 언어 관계를 하나씩 정리한 일부만을 제시한다.

(1) 신체

① 신체 형태

신체 형태의 형용사 수식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가늘고 긴' 신체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신체의 라인은 '굴곡진' 형태를

그리고 있다.

'11자' 다리, '(8등신에)가까운' 비율, 'S라인' 몸매, '무결점' 각선미 등으로 신체 형태의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수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과한' 사이즈, '두꺼운' 다리, 등의 부정적인 수식과 결합된 신체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변형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완벽' 몸매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신체의 불완전한 부분, 결함 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 형태의 수식어 중에서 '착한' 가슴, '착한' 엉덩이, '착한' 다리, '착한' 몸매로 여성의 신체 부위에 형용사 '착한'이 결합하여 쓰이고 있었다. '착한'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착하다”, n.d.)로 인격에 관한 표현이지만 신체의 외형을 수식하는 어휘를 쓰이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단어 사용이 전이된 명사 '명품(名品)'이 신체를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외모에 관한 어휘들 중 패션과 연관된 소비재에 많이 어울려 사용되었던 '명품'을 '명품' 몸매, '명품' 바디라인, '명품' 각선미, '명품' 코치럽 신체의 각 부위에 결합하고 있는 현

상은 외모에서 신체의 일부분에 사람들에게 인정 받는 신체 가치와 미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 형태에서 ‘평균’ 신체 사이즈, ‘정상’ 체격, ‘표준’ 체형, ‘적정’ 몸무게 등이 등장한 것은 한국 구성원들이 그릴 수 있는 평균적인 신체 형태가 있으며, 이에 대해 올바른 신체 형태를 운용하는 올바른 관리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신체 형태에서 신체 변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수식되는 키워드는 유방/가슴이었다. ‘한방(韓方)’, ‘물방울’, ‘자가지방’, ‘줄기세포’, ‘실리콘’과 같이 가슴 성형에 관련된 어휘들이 나타났으며, 다른 신체 형태의 키워드들에 비해 구체적인 성형 방식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뉴스 기사에서 여성의 가슴에 대한 신체 변형, 즉 성형에 관해 언급량과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많음을 의미한다.

② 신체 동작

미디어에서 여성의 신체 동작에 대한 언어 관계들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아름다운’ 몸짓, ‘바른’ 자세, ‘올바른’ 걸음걸이, ‘부드러운’ 제스처와 ‘우스꽝스러운’ 몸짓, ‘어설픈’ 몸짓, ‘건방진’ 몸짓, ‘나쁜’ 자세, ‘나쁜’ 걸음걸이처럼 신체 동작에 올바른 움직임과 잘못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 동작에 관해 행실이 바르고 단정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신체 동작 여성의 외모를 성(性)적인 것과 연관 짓는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었다. ‘야한’ 몸짓과 ‘관능’, ‘섹시’, ‘에로틱’, ‘농염’ 몸짓, ‘(낮)뜨거운’ 자세와 같이, 여성의 신체 동작에서 신체가 성적인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서 여성에 관한 성적 대상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③ 신체 표면

여성의 피부에 관한 표현들로 그려지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의 광채를 띄는 피부이다. ‘아기’, ‘무결점’, ‘물광’, ‘광채’ 피부와 ‘우윳빛’ 피부 결, ‘도자기’ 피부 톤에서 알 수 있듯이, 티 없이 깨끗하고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가 여성의 피부로 언급되고 있었다. 동시에 ‘구릿빛’ 이 피부, 피부색, 피부 톤 앞에서 공기하고, ‘태닝’ 피부 톤이 등장하는 것은 원래의 피부를 선택/태닝하는 신체 변형으로의 연결성을 보이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탐스러운’, ‘까만’,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부드러운’, ‘매끄러운’ 머릿결에 ‘눈썹’ 머리색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 중 발톱에 관한 형용사 수식에서 ‘(치료가) 힘든’ 것으로, 명사 수식에서는 발톱 질환자인 ‘내성’, ‘(내향성) 족지’ 발톱이 열거되었다.

④ 얼굴 구성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는 동안(童顏)이 얼굴 구성의 각 키워드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동안’ 얼굴, 얼굴형/두상부터 ‘동안’ 코, 광대, 입술, 눈썹에 이르기까지 얼굴의 각 부분에서 ‘동안’이 함께 쓰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얼굴형/두상, 이마, 광대와 같이 얼굴 형태에서는 ‘도드라지고 굴곡진’ 형태를 부정적으로, ‘엷되고 동그랗고 부드러운’ 것을 긍정적으로 수식하고 있었다.

‘하얀’ 얼굴, ‘환한’ 이마, ‘새하얀’ 치아, ‘뽀얀’ 얼굴색처럼 얼굴 구성의 얼굴 형태와 표면은 환하고 하얀 것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피부 속’ 얼굴색도 ‘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아름다운/못생긴’ 얼굴, ‘예쁜/못생긴’ 이마, ‘멋진/못난’ 코 등과 같이 신체에 관한 이분법적인 판단이 얼굴 구성의 언어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신체에 관하여 사회의 미적 기준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사회적 행

동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얼굴 구성에 관한 언어 관계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얼굴 구성에 속하는 키워드들에서 신체 변형을 의미하는 어휘들이 다량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V라인’ 얼굴형도 없지만, ‘마름모’, ‘역삼각’ 얼굴형과 ‘날카로운’ 광대, 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비대칭’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부드러운’ 얼굴형과 ‘(V라인에) 가까운’ 얼굴 윤곽, ‘명품’ 코를 갖기 위해 ‘새로운’ 코 수술을 받기를 실득하고 있다. ‘동그란’ 이마를 갖기 위해 ‘보형물’을 이마에 넣어야 하고, ‘커다란’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쌍꺼풀’ 눈으로 변형하며, ‘아름다운’ 코는 ‘한방’ 코로, 치이는 ‘(성형이) 빠른’ 것으로 변형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특히, 광대는 외모의 신체 중에서도 얼굴의 구성에 일부에 해당하는 세분화된 부분이지만, 이를 앞 광대, ‘45도’ 광대, ‘옆’ 광대로 다시 나누어 설명하고 각 뼈들을 성형하는 방식이 언어 관계에서 그대로 도출되었다. ‘도드라진’ 광대뼈의 앞과 뒤쪽을 절체해 안쪽 광대뼈를 ‘L자형’으로 절골하고 회전시켜 광대를 축소시키는 수술 또는 빠른 광대뼈축소술인 ‘EZ’ 광대 성형수술을 받으면 ‘동안’ 광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다.

얼굴 구성 중 얼굴 동작에서는 ‘섹시’, ‘19금’ 표정과 ‘팜파탈’, ‘매혹’, ‘도발’, ‘섹시’ 눈빛의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 동작 범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신체 변형

한국 여성의 외모는 신체 변형을 통해 외관상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빠르게 변화 가능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었다. 신체 변형의 개념 속성 키워드의 수식어에는 ‘빠른’ 미백, ‘쉬운’ 시술, ‘단기간’ 다이어트, ‘스피드’ 체중감량, ‘급속’ 치아교정, ‘1회’

시술 등 손쉬운 신체 변형 과정과 ‘뛰어난’ 시술, ‘전문’ 피부관리를 통한 자연스러운 신체 변형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또한 명사 ‘반영구’, ‘영구’로 신체 변형의 오랜 지속성을 내세우는 어휘들이 나타났다. 동시에 ‘지나친’, ‘선부름’처럼 과도한 신체 변형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 변형은 앞서 살펴본 신체 범주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 여성의 이상적인 외모와 서로 연관을 가진다.

① 색 변형

신체의 색 변형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포함된 범주이기에, ‘노란’ 염색, ‘푸른’ 타투, ‘빨간’ 페디큐어와 같이 색상을 나타내는 형용사, 명사들이 쓰였다. 그리고 신체의 색을 변형하는 과정에 ‘빠른’이 등장하는 것은 염색, 미백/화이트닝과 같은 신체 변형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변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있고 동시에 빠르게 변형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화장/메이크업, 미백/화이트닝, 타투/문신에 ‘새로운’이 형용사로, 미백/화이트닝에 ‘신개념’이 좌측에 공기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의 색 변형이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가 등장하는 패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패션’ 타투는 신체 변형의 패션화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예라고 볼 수 있다.

문신은 신체의 색 변형 중 유일하게 ‘반영구’로 변형 가능한 특성을 지니기에, ‘(원상복구가) 힘든’ 문신, ‘(삭제가) 어려운’ 문신과 같이 신체 변형 후의 복구에 대한 언어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화장에서 문신의 반영구적인 기능이 더해진 변화는 ‘반영구’ 눈썹과 ‘눈썹’, ‘두피’, ‘아이라인’, ‘눈꺼풀’ 문신을 통해 언어 관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② 형태 변형

신체의 형태 변형 범주에서는 체중 관리법과 성형 등이 한국 사회에서 주요하게 일어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나친’ 다이어트, 운동, 성형과 같이 신체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언어 관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신체의 형태 변형 키워드들에 공기하는 명사들은 다양한 행위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살을 빼서 신체의 형태를 변형하는 다이어트는 ‘한방’, ‘수면’, ‘원푸드’, ‘슬리핑’, ‘단기간’, ‘황제’, ‘복싱’, ‘디톡스’의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언어 관계로 드러나고 있었다. 성형은 ‘가슴’, ‘전신’, ‘이마’, ‘한방’, ‘빠티’로 성형을 통해 변형되는 신체 부위와 방법에 대해, 시술은 ‘레이저’, ‘필러’, ‘보톡스’, ‘임플란트’, ‘리프팅’, ‘제모’와 같이 시술의 종류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들이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신체의 형태를 변형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형용사 ‘새로운’은 다이어트, 체중감량, 운동, 성형, 시술, 치아교정, 헤어스타일/머리모양에 모든 높은 순위에서 언어 관계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피어싱을 제외한 신체의 형태 변형 키워드 전 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체의 형태를 변형하는 다양한 방식이 새롭게 등장하고 수많은 방식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의 형태 변형과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한방’이, 침을 맞고서 살이 빠지고 가슴이 커지게 해준다는 ‘한방’ 다이어트와 ‘한방’ 성형으로 쓰이고 있었다.

③ 질감 변형

신체의 질감 변형에 속하는 키워드들 중에서 피부미용, 피부시술, 피부관리, 모발관리, 제모/와싱의 앞에 형용사 ‘새로운’이 쓰이고 있었으며, 질감 변형의 키워드에 공기하는 좌측 명사들을 보면 한국 여성들이 각종 피부에 가할 수 있는 변형 방식들을 알 수 있었다.

‘레이저’, ‘필러/필링’, ‘리프팅’, ‘보톡스’, ‘고주파’의 각종 피부시술과 ‘모공’, ‘각질’, ‘기초’, ‘보습’,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피부관리, ‘레이저’,

‘브라질리언’, ‘영구’, ‘(비키니)라인’, ‘전신’ 제모까지 세분화된 신체의 질감을 변형할 수 있는 관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 ‘스페셜’, ‘집중’, ‘프리미엄’, ‘고급’ 모발관리가 ‘셀프’ 모발관리, ‘셀프’ 제모와 함께 나타나는 언어 관계에서, 신체 질감 변형은 개인이 직접 하는 관리에서부터 전문 업체에서의 관리까지 같은 변형에 대해서도 비용 투자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 ‘무허가’가 피부미용과 등장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과 관련된 미용산업이 전문 의료에서부터 음식까지 폭넓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연관어 분석: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1) 연관어 수집

연관어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핵심 단어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빅카인즈의 연관어 분석은 토픽 랭크(Topic Rank)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정확도 기준으로 최대 1,000건의 뉴스 기사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명사를 포함한 명사 상당 어구의 연관어들을 추출하며, 검색어에 관련된 약 20~27개의 연관어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형태와 각 연관어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된 엑셀파일로 제공한다. 여기서 가중치란 빅카인즈는 토픽 랭크 알고리즘에 기반해 출력되는 결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뉴스 기사 중에서 언급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Korea Press Foundation, 2017).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신체 변형의 개념 속성 키워드들 중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한 언급이 많아서 신체 변형 중 차지 비율이 높은 ‘화장/메이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술’을 각각 연관어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와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뉴스 기사들에서 연관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국제, 지역, 스포츠, IT

Table 4. 연관어 분석의 코퍼스 수집 범위.

구분	내용
언론사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주제 분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검색 기간	2000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검색어	(화장/메이크업) AND ((여성) OR (여자))
	(다이어트) AND ((여성) OR (여자))
	(운동) AND ((여성) OR (여자))
	(성형) AND ((여성) OR (여자))
검색 범위	(시술) AND ((여성) OR (여자))
	형태소 분석 / '제목+본문'으로 전체 검색

과학 분류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분야만 다루는 주제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한국 사회 전체와의 유관성을 갖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제로 한정 지어 분석하였다. 연관어 분석을 위한 코퍼스 수집 범위는 <Table 4>와 같다.

2) 연관어 분석 결과

연관어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련된 키워드들에 어떠한 사회적 이슈들이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빅카인즈에서 분석 기간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18년 동안 여성 또는 여자의 신체 변형 개념 속성 키워드 중 ‘화장/메이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술’을 검색한 결과, 분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복 기사와 인사/부고 기사 등을 제외한 총 56,374건의 기사에 대해 연도별로 연관어 분석을 수행했다.

5개의 키워드 모두에서 ‘사람들’, ‘남성들’, ‘남자들’이 상위의 연관어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 또는 여자의 신체 변형 키워드가 언급된 뉴스 기사들에 대하여 연관어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남성들’, ‘남자들’과 같이 여성, 여자라는 어휘와 함께 성에 따른 구분을 짓기 위해 쓰인 어휘와 ‘사람들’처럼 뉴스 기사의 문장 속에서 사람을 이르기 위한 말들이 연관어로 지속적으로 등장한 것이

므로 수집된 연관어에서 ‘사람들’, ‘남성들’, ‘남자들’을 제외하였다.

신체 변형의 5개의 키워드별로 상위 10개의 연관어들 중에서 고빈도로 반복되는 연관어를 살펴본 것은 한국 미디어에서 나타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공식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연관어의 가중치는 키워드에서의 연관된 순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성된 순위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중치는 키워드의 빈도, 주변 단어와의 공기하는 정도 등을 조합하여 산정되므로 키워드와 연도에 따른 분석 대상의 가중치 값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빅카인즈에서 추출되는 연관어는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통해 빅카인즈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특정 임계치 이상만 표출된 것이므로 분석 결과로 수집된 연관어는 모두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의 연관어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등장하는 ‘성형수술’은 2000년에 가중치 5.42로 3순위에 등장하였고 2011년에는 가중치 4.87로 21순위였으나, 연관어 목록의 절대적인 가중치 값을 근거로 2011년에는 한국 여성의 다이어트에서 성형수술과의 연관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연관어 목록에 포함된 모든 연관어는 특정 임계치 이상을 넘었기에 키워드와의 연관성을 갖는 단어이자 언론사의 관심이 반영된 단어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메이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술’의 연관어로 약 2,000개의 단어들 이 수집되었다. ‘화장 및 메이크업’의 연관어로 낱골당이 등장하는 것과 같이 신체 변형을 뜻하지 않는 동음이의어로 발생한 연관어와, 신체 변형과 관련성을 가진 연관어이지만 일회성으로 등장하고 사라진 누적 빈도수가 1인 연관어는 제외하였다. ‘화장 및 메이크업’의 연관어 중에서 ‘생얼’은 ‘생얼’으로도 등장하므로 이를 공통된 형태로 맞춰주는 과정과 ‘다이어트’의 연관어로 등장한 ‘체중 감량’, ‘체중감량’과 같이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 단어들의 경우도 같은 형태로 맞추는 과정과 같은 된소리나 띄어쓰기로 인해 표기 형태가 다른 단어들은 같은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어의 형태를 정제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한 연관어들을 정리하여 신체 변형에 관한 총 223개의 연관어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어휘적 속성별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난 18년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미디어 속에서 나타나는 연관어를 공식적으로 보았을 때, 신체 변형을 소비와 연관 짓는 단어, 신체 변형의 대상과 이에 대한 평가의 방식, 삶의 바른 태도, 외모 추구의 효율과 전문적인 분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체 변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연관어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체 변형 관련 어휘적 의미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언어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과 수식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체 변형 중 ‘화장/메이크업’, ‘다이어트’, ‘운동’, ‘성형’, ‘시술’의 연관어 분석을 통해 지난 18년 동안 한국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해 함께 언급되는 단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현실에서 일상화된 언어가 미디어 속에 반영된 표현과 미디어의 전략적인 목적을 가진 언어가 뒤섞여 있으나, 뉴스 기사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해 생성되는 표현들은 한국 여성들에게 신체 변형을 더욱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한국 미디어가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언어적 차원에서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언어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함께 신체 변형의 5개 키워드에 관한 연관어의 코퍼스들을 공식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한 어휘적 특징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Table 6>과 같다.

첫째, 단순히 개인의 외적인 특성을 위한 신체 변형이 아니라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리고 있었다. ‘뛰어난 몸매/미백/성형’, ‘빼어난 각선미’, ‘멋진 헤어스타일’, ‘명품 바디라인’의 언어 관계와 ‘자신감’, ‘경쟁력’, ‘차별화’, ‘만족도’, ‘외모변화’, ‘피부변화’의 연관어로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는 경쟁의 시대에서 신체 변형을 통해 개선 또는 변화된 개인의 외모가 경쟁력을 가짐을 시사한다.

둘째, 신체를 과학적인 기술로 조작이나 개입이 가능한 대상이자,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고 변형해야 하는 대상으로 소비와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 ‘비싼 성형’, ‘값비싼 헤어케어’, ‘전문가 미백’, ‘고급 피부미용’, ‘프리미엄 헤어케어’와 ‘성형수술’, ‘필러’, ‘화장품’, ‘LG레이디카드’, ‘소비자’, ‘고객들’, ‘수술비’, ‘전문적’, ‘의료진’, ‘전문가’ 등 타고나지 않은 신체의 형태는 근본적인 수준에서부터 향상시키고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신체 변형과 관련된 제품과 상품들이 뉴스 기사에서 언급되면서, 신체 변형에의 소비를 종용하는 어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유행하는 신체 형태와 신체 변형에 대한 어휘들이 존재하며, 뉴스 기사 속에서 이러한 신

Table 5. 신체 변형 연관어(총 223개)의 어휘적 속성별 분류.

연관어	어휘적 속성
우리나라(45), 중국(22), 프랑스(9), 영국(6), 부산(5), 한국(5), 강남(3), 서울(2), 미국(2)	지역
자신감(31), 매력적(10), 만족도(7), 외모 변화(6), 피부변화(5), 경쟁력(5), 정체성(3), 차별화(2), 성공률(2)	획득할 수 있는 가치
몸짱(9), 얼짱(5)	외모 우위 지칭
상대적(10)	외모 기준 관계
미인대회(2), 요녀(2)	성적 대상화
자연산(2)	신체를 식품에 비유
TV(9), SNS(9), 시청자들(7), 인스타그램(4), 파르베(3), CF(3), 페이스북(2), 동아TV(2), 랫미인(2)	미디어 종류
연예인(30), 아이들(28), 친구들(15), 장애인(10), 네티즌들(9), 직장인(8), 연령대(6), 주부들(5), 여대생(5), 남자친구(5), 20~30대(5), 수험생(3), 여학생들(3), 젊은이들(3), 남녀노소(3), 시민들(3), 스타들(3), 여배우(3), 일반인(2), 청소년들(2), 선생님(2), 여고생(2), 모델들(2), 입신부(2), 25~29세(2)	구성원 집단명과 연령
박근혜(6), 이효리(5), 이영자(4), 전지현(3), 체시라(2), 김아중(2), 엄정화(2), 루나(2), 걸그룹(2), 김호정(2), 한명숙(2)	유명인
몸무게(24), 뱃살(18), S라인(11), 쌍꺼풀(8), 광대뼈(6), 주름살(5), 볼륨감(5), 쌍일(5), 민낯(4), 눈빛(4), 속눈썹(4), 얼굴형(4), 각선미(3), 맨얼굴(3), 온몸(3), 이목구비(3), 매부리코(3), 팔자주름(3), 눈꺼풀(2), 생머리(2), 발끝(2), 피부색(2), 아랫배(2), 똥배(2), 콧대(2), 바디라인(2), V라인(2), 사각턱(2), 피부 탄력(2)	신체 부위와 특정 형태의 신체 부위 및 신체 모양
성형수술(30), 식이요법(19), 지방흡입술(17), 펠러(16), 보형물(13), 헤어스타일(13), 쌍꺼풀 수술(8), 수술법(6), 스트레칭(7), 채수술(4), 가슴성형(4), 이쁜이수술(4), 유방확대 수술(4), 박피술(3), 모발이식(3), 프 로포폴(3), 체형교정(2), 고주파(2), 자용점(2), 지방이식(2), 질성형(2), 변비약(2), 화장품(8), 아이새도(5), 자외선 차단제(5), 아이라인(5), 신제품(2), 제품들(2), 옷차림(25), 미니스커트(3), 하이힐(3), 청바지(2) LG레이디카드(3)	신체 변형 수단과 상품
소비자(5), 고객들(2)	소비자 지칭
피부과(20), 성형외과(15), 전문가들(15), 전문의(7), 의료진(6), 미용실(6), 의사들(4), 헬스클럽(2), 병원측(2), 전문가(2), 의료기관(2), 연구팀(2), Clinic(2), 백화점(2) 아모레퍼시픽(11), 태평양(5), LG생활건강(4), 라네즈(2), 랑콤(2) LG캐피탈(2)	소비산업 주체
건강보험(4), 수술비(3), 보험료(3), 보험금(2), 생명보험(2),	비용측 측면
단백질(7), 에스트로겐(6), 식이섭취(5), 영양소(3), 지방세포(2), 저지방(2), 섬유질(2), 셀룰라이트(2), DNA(2)	의학적, 과학적 용어
일상생활(18), 식습관(10), 생활습관(6), 건강식(3), 식생활(3)	일상의 생활
피부관리(12), 체중감량(10), 몸매관리(9), 피부미용(3), Beauty(2)	습관과 관리
일주일(2), 점심시간(2), 단기간(2)	시간 관련
쿠키 건강 칼럼(13), 미학칼럼(4)	기사 칼럼명
설문조사(12), 실태조사(2), 응답자(2)	객관적 자료
성폭력(9), 외모지상주의(8), 피해자(6), 성매매(5), 성희롱(3), 변호사(3), 고정관념(2), 외모 콤플렉스(2), 성차별(2), 성추행(2), 김씨(23), 이씨(15), 박씨(3)	사회 문제와 사건·사고 보도 관련
부작용(45), 유방암(20), 우울증(15), 치료법(13), 발병(10), 고혈압(7), 거식증(7), 요요현상(7), 관절염(5), 암 치료 과정(5), 합병증(4), 후유증(3), 공업용 실리콘(3), 당뇨병(3), 복부비만(3), 과체중(2)	부작용 및 질병 관련
불가능(2)	실현 유무의 부정
눈물(14), 처절(2)	감정 관련
안전성(7), 위험성(2)	안전 관련
보건복지부(6), FD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 국민건강보험공단(2)	관리·감독을 행하는 기관명

* 연관어 옆 괄호 안의 숫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 사이에 연관어로 등장한 누적 빈도수

체 변형에 관한 구체적 정보들이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코/화장/다이어트/성형 등’;

‘줄기세포 가슴’, ‘신개념 미백’, ‘트렌드 헤어컬러’, ‘버선 코’, ‘동안 입술’, ‘EZ 광대’, ‘V라인 턱’;

Table 6. 신체 변형 관련 어휘적 의미 범주.

범주	언어 관계	연관어	특징 및 의미
가치 획득	뛰어난 몸매/미백/성형 등, 빼어난 각선미, 멋진 헤어스타일, 명품 바디라인 등	자신감, 경쟁력, 차별화, 만족도, 외모변화, 피부변화 등	신체 변형은 가치 획득의 수단
소비와 투자	비싼 성형, 값비싼 헤어케어, 전문가 미백, 고급 피부미용, 프리미엄 헤어케어 등	성형수술, 필러, 화장품, LG레이디카드, 소비자, 고객들, 수술비, 전문의, 의료진, 전문가 등	신체는 신체 변형을 위한 소비와 투자의 대상
유행과 정보	새로운 코/화장/다이어트/성형, 줄기세포 가슴, 신개념 미백, 트렌드 헤어컬러, 버선 코, 동안 입술, EZ 광대, V라인 턱, 투명 화장, 한방 성형 등	패션 타투, S라인, V라인, 쌍얼, 자홍침 등	유행하는 신체 형태와 신체 변형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존재
효율과 효과	손쉬운 피부관리, 빠른 염색/미백/다이어트/체중감량/시술, 급속 치아교정 등	일주일, 점심시간, 단기간, 만족도, 안정성, 외모변화, 성공률 등	신체 변형 방식의 효율성과 그 효과성을 빠르고 쉬운 것으로 표현
세분화	11자 다리, S라인 몸매, V라인 얼굴, 인비절 얼굴윤곽, 45도 광대, 뿌리 염색, 소음순 성형 등	광대뼈, 팔자주름, 이쁜이수술, 지방세포, 셀룰라이트 등	신체 형태 각 부분에 대해 세분화된 신체 변형 존재
반작용과 다변화	지나친 염색/화장/미백/다이어트/운동/성형, 과한 염색/화장 등	선천적, 자연산, 상대적, 매력적 등	과도한 신체 변형에 대한 반작용과 절대적 기준의 미보다는 상대적 매력에 중요해지는 현상 공존
판단과 평가	아름다운/못생긴 얼굴, 예쁜/못생긴 이마, 멋진/못난 코 등	몸짱, 열짱, 네티즌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이분법적 구도의 신체 평가 및 신체 변형의 실천 동기로 기능하는 외모 평가 문화 존재
성적 대상화	야한/관능/섹시/에로틱 몸짓, 섹시/19금 표정, 팜프파탈/매혹/도발/섹시 눈빛 등	이쁜이수술 등	성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매개물로서의 여성의 신체 존재 및 길으로 감춰진 성기까지 신체 변형 실천 발생
자기 관리의 일상화	완벽 몸매, 무결점 피부, 착한 가슴/영양이 등	피부관리, 몸매관리, 일상생활, 식습관, 생활습관 등	신체 운용의 자기관리 일상화 및 바른 태도를 전제로 신체 변형의 당위성 부여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	깡마른 체형/몸매, 심한 다이어트/운동, 지나친 성형, 무허가 피부미용, 불법 시술 등	눈물, 처절, 고정관념, 성차별, 성추행, 외모지상주의, 피해자, 위험성, 부작용,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칼럼 등	신체 변형 관련 부정적인 사회 문제 존재 및 지나친 신체 변형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실천 공존

‘투명 화장’, ‘한방 성형’과 ‘패션 타투’, ‘S라인’, ‘V라인’, ‘쌍얼’, ‘자홍침’ 등이 신체 변형과 함께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뉴스 기사는 그 구조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의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권력적인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신체 변형의 방식에서의 효율과 이로 인한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손쉬운 피부관리’, ‘빠른 염색/미백/다이어트/체중감량/시술 등’,

‘급속 치아교정’, ‘일주일’, ‘점심시간’, ‘단기간’, ‘만족도’, ‘안정성’, ‘외모변화’, ‘성공률’ 등과 같이 신체 변형에 대해 수월하고 짧은 시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다섯째,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세분화와 이로 인해 신체 변형도 동일하게 세분화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었다. ‘11자 다리’, ‘S라인 몸매’, ‘V라인 얼굴’, ‘인비절 얼굴윤곽’, ‘45도 광대’, ‘뿌리 염색’, ‘소음순 성형’ 등의 언어 관계와 ‘광대뼈’, ‘팔자주

름’, ‘이쁜이수술’, ‘지방세포’, ‘셀룰라이트’ 등으로 외모가 총체적인 것에서 파편화되는 사회적 시각이 반영된 어휘들이 수집되었다.

여섯째, 과도한 신체 변형에 대한 실증 또는 반작용 현상으로 인해 신체 변형의 반작용과 다변화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존재하였다. ‘지나친 염색/화장/미백/다이어트/운동/성형’, ‘과한 염색/화장’, ‘선천적’, ‘자연산’, ‘상대적’, ‘매력적’ 등으로 뉴스 기사 내에서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신체에 대한 언급과 신체 변형의 복구에 대한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절대적인 기준의 미에서 다양하고 상대적인 매력이 중요해지는 변화가 어휘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곱째, 아름다운 신체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판단과 이분법적인 구도로 외모를 평가하는 문화가 드러나고 있었다. ‘아름다운/못생긴 얼굴’, ‘예쁜/못생긴 이마’, ‘멋진/못난 코’, ‘몸짱’, ‘얼짱’, ‘네티즌들’,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신체 변형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보여주는 어휘들이 수집되었으며, 신체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여성의 신체 변형의 실천 동기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덟째, 여성의 외모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남성들의 시각이 신체 변형에 관한 어휘들에서 성적 대상화로 드러나고 있었다. ‘야한/관능/섹시/에로틱 몸짓’, ‘섹시/19금 표정’, ‘깜뜨파탈/매혹/도발/섹시 눈빛’과 같이 신체의 움직임에도 성적의 의미가 드러나는 매개물로서의 신체가 존재하며, 신체 변형의 연관어로 등장한 ‘이쁜이수술’에서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것 외에도 겉으로는 감춰진 성기(性器) 부분까지 신체 변형의 실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이상적인 신체를 갖기 위한 일상에서의 자기관리의 필요성이 드러나며, 질병과 연관 지어 신체 변형은 바른 태도임을 전제하여 신체 변형의 당위성을 더하는 의미를 갖는다. ‘완벽 몸매’, ‘무

결점 피부’, ‘착한 가슴/엉덩이’를 갖기 위해 각종 ‘피부관리’, ‘몸매관리’,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운용해야 하는 자기관리의 일상화가 드러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체 변형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적인 사회 문제가 존재함과 동시에 지나친 신체 변형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위한 실천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깡마른 체형/몸매’, ‘심한 다이어트/운동’, ‘지나친 성형’, ‘무허가 피부미용’, ‘불법 시술’, ‘눈물’, ‘처질’, ‘고정관념’, ‘성차별’, ‘성추행’, ‘외모지상주의’, ‘피해자’, ‘위험성’, ‘부작용’,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등의 어휘에서 신체 변형에 관한 사회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상의 10개의 범주는 한국의 언어 현실을 반영된 코퍼스들의 집합으로, 신체 변형에 관한 언어 사용에서의 반복적인 패턴과 상호 간의 긴밀한 어휘적 특징과 의미가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18년의 시간 동안 쌓인 방대한 뉴스 기사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언어적 사용과 어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V. 결론

언어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회 현실을 정의하고 구성한다(The Korean Association for Cultural Sociology, 2012). 한국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 추구는 사회·문화와 함께 변화해왔으며, 미디어는 의제설정과 프레임링 효과로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 실천에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미디어 속에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해 발생하는 텍스트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그 어휘적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산물로서의 여성의 외모를 규정

하는 언어적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2000년부터 2017년 뉴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미디어는 여성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하여 이상적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신체 변형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패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 범주의 언어 관계 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 신체의 시간적인 특성을 수식하고 명명하는 표현과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추구하는 신체의 이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체 변형에 관한 연관어 분석에서는 신체 변형에 관해 소비와 연관 짓는 단어, 신체 변형의 구체적 대상 나열과 신체 변형 후의 신체에 대한 평가 방식, 삶의 바른 태도로 신체 변형을 묘사, 신체 변형을 통한 외모 추구의 효율성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드러나는 용어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신체 변형에 관한 연관어를 통해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 변형에 관한 다양한 보도들은 여성이 신체 변형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신체 변형이 타고난 외모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외모를 위해 관리하는 행위로 인식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신체 및 신체 변형에 관한 어휘적 의미는 가치 획득, 소비와 투자, 유행과 정보, 효율과 효과, 세분화, 반작용과 다변화, 판단과 평가, 자기관리의 일상화, 성적 대상화, 사회 문제의 비판 및 개선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 미디어 속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한 언어적 사용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그 속에서의 어휘적 의미가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를 통해 뉴스 기사의 텍스트에서 여성의 신체 변형에 대해 외모 담론으로 이끌어가는 패턴이 존재하며, 질적인 접근으로 더 구체적인 담론 추적

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외모 텍사노미를 도출하여 각각의 어휘들이 뉴스 기사들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코퍼스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 여성의 신체와 신체 변형에 관한 담론을 구성하는 텍스트의 외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뉴스 기사의 문장 내부에서 그 의미를 더 찾아야 하며 어휘들 간의 연결과 결합에 대한 유기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 어떠한 구조로 여성 외모 담론이 사회로 전달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뉴스 기사들 속에서 외모와 관련된 코퍼스들을 추출하여 담론 분석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뉴스 기사의 질적인 접근의 단서로 활용하여, 미디어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의 신체 변형을 중심으로 외모에 관한 담론적 지형을 확인하는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Dacosta, M. C., Obrst, L. J., & Smith, K. T. (2003). *The semantic web: A guide to the future of XML, web services, and knowledge management*. Indianapolis: Wiley Pub.
- Hillestad, R. (1980).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6(1), 117-125. doi:10.1179/036121180805298691
- Hillestad, R. (2005). Appearance. In Steele, V. (Eds.), *Encyclopedia of clothing and fashion* (pp. 62-64). Farmington Hills, MI: Charles Scribner's Sons.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11). 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1. *ISAPS*. Retrieved January 26, 2019, from <https://www.isaps.org/wp-content/uploads/2017/10/ISAPS-Results-Procedures-2011-1.pdf>
- Johnson, K.K.P., Schofield, N. A., & Yurchisin, J. (2002). Appearance and dress as a source of information: A qualitative approach to data collec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0(3), 125-137. doi:10.1177/0887302X0202000301
- Jun, J. H., & Lee, M. S. (2014). Media involvement on appearance evaluation, appearance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 Clothing and Textiles*, 38(4), 518-527. doi:10.5850/JKSCT.2014.38.4.518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New York: Fairchild.
- Kim, J. M., & Han, G. H. (2008). The effects of mass media,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BMI on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eating behavior.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4), 73-83.
- Kim, J. Y., Yim, E. H., & Chun, H. K. (2013). Effec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lf-image and media involvemen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2), 164-178. doi:10.12940/jfb.2013.17.2.164
- Kim, S. H., & Bae, H. S. (2014). Effects of social and 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portrayed through mass media on women's intention of cosmetic surge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0(2), 253-261.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The 13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Cheongju: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Korea Press Foundation. (2017).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Bigkinds user manual]. Retrieved January 26, 2019, *Big kinds*. from https://www.kinds.or.kr/manual/%EB%B9%85%EC%B9%B4%EC%9D%B8%EC%A6%88_%EC%82%AC%EC%9A%A9%EC%9E%90%EB%A7%A4%EB%89%B4%EC%96%BC.pdf
- Lee, G. E. (2015). 잃어버린 저널리즘을 찾습니다: 한국 언론의 디지털 생존 보고서 [Finding lost journalism: The digital survival report of the Korean press]. Paju: Hanul academy.
- Lee, J. Y., & Park, H. J. (2013). Effects of self-esteem,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and media concern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attitud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5(3), 1-17.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Min, J. H. (2008). The effects of media use on adolescents' lookism and the desire to improve body image: Focusing on tv entertainment programming and personal media. *Forum For Youth Culture*, 19(1), 45-78.
- Moon, J. S. (2006). *Service classification and relationship management of services in internet portal based on topic ma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ist, Daejeon.
- Noy, N. F., & McGuinness, D. L. (2001). Ontology development 101: A guide to creating your first ontology. *Stanford Knowledge Systems Laboratory Technical Report KSL-01-05 and Stanford Medical Informatics Technical Report SMI-2001-0880*, 1-25.
- Park, J. I., Yoo, J. M., & Kim, C. S. (2016). The effect of overexposure in the mass media's to emphasize the appearance on body images and self esteem of femal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7), 167-187. doi:10.21509/KJYS.2016.07.23.7.167
- Park, S. K. (2014). The effect of media involvement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plastic surgery related attitudes and intentions: Focusing on gender and age.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4), 101-116.
- Park, S. Y., & Hwang, J. S. (2015). Effect of fashion/ beauty tv media use on appearance consumption behavior.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 47, 115-130.
- Roach-Higgins, M. E., & Eicher, J. B. (1992).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4), 1-8.
- Safire, W. (2000, August 27). The way we live now: 8-27-00: On language; Lookism.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January 26, 2019, from <https://www.nytimes.com/2000/08/27/magazine/the-way-we-live-now-8-27-00-on-language-lookism.html>
- Shin, S. I. (2017).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corpus-assisted discourse analysis. *Korean Semantics*, 55, 53-79. doi:10.19033/sks.2017.3.55.53
- Song, J. Y., Rhee, N. H., & Lee, Y. M. (2009). Influence of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on body-cathexis and self-esteem by med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and Arts*, 10(1), 91-104.
- Taxonomy. (n.d.). *Wikipedia*. Retrieved January 26, 2019, from [https://en.wikipedia.org/wiki/Taxonomy_\(general\)](https://en.wikipedia.org/wiki/Taxonomy_(general))
- The Korean Association for Cultural Sociology. (2012). *Cultural sociology*. Paju: Sallimbook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착하다 [good]. (n.d.).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January 26, 2019,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B0%A9%ED%95%98%EB%8B%A4>

Corpus Analysis of Korean Women's Appearance

- Focused on Analysis of News Articles about Body and Body Modification -

Ahn, Jin Hyun · Ha, Ji Soo⁺

Ph.D.,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n women are living a life in a society where much unprecedented emphasis is put on appearance. Images of beautiful looks are being shared with women as the visual culture and established as significant values to them.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mpirical linguistic phenomena that define Korean women's appearance through corpus analysis which investigated how linguistic expressions are used for the body and body modifications of women and lexical characteristic and meaning of body modification in the media both reflecting society and culture and influencing them at the same time throughout the Korean society. The followings are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Corpus analysis on the body and body modification of Korean women based on news articles analysis from 2000 to 2017. First, Korean media showed an ideal image of a female body by part and the body modification revealed an attribute of fashion changing and pursuing the new. A variety of reports about women's body modifications in the media have influenced women's acceptance of body modifications so they are perceived as management for future appearance, rather than damaging their innate appearance. Second, lexical meanings of the female body and body modification in media could be categorized into value acquisition, consumption & investment, fashion & information, efficiency & effect, segmentation, reaction & diversification, judgment & evaluation, routine of self-management, sexual objectification, criticism and improvement of social issues. This study derived the taxonomy of appearance stratified by its concept, meaning and attribute, based on above, identified speech acts of appearance from a large quantity of texts, so intends to expand the range of research that discovers the importance of body and appearance they have in studies of clothing and textile from linguistic phenomena. It is also an empirical research that collects the modifications and expressions of the body and body modification composing the appearance of women in Korean society, and it is expected to be a material to suggest contemporary Korean women's standard of appearance from a verbal dimension.

Key words : appearance, body, body modification, media, corpus analysis